

전북대 황인서 박사과정생, 식품과학회 '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황인서 박사과정생(식품영양학과·지도교수 김미나경민)이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대회에서 황인서 박사과정생은 전국에서 시판되는 한식 된장의 향 특성을 규명해 한식된장의 향을 설명하는 아로마 휠(Aroma wheel)을 제시, 지역별 한식 된장의 향 특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한식 된장은 개량 된장과는 달리 자연발효 과정을 통해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향을 갖게 되는 특성이 있으나 전국을 포괄하는 한식 된장의 객관적인 향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감각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기존 된장의 향 관련 연구는 일부 지역의 소수 시료만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고 그마저도 기기적 분석 연구에 치우쳐 진행된 경향이 있다. 또 한식 된장의 향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 확립 역시 되지 않아 자연발효 과정을 통해 제조된 한식 된장의 향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황 박사과정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통 자연발효 과정으로 제조되는 한식 된장의 향 특성을 확인했고, 연구 결과가 향후 진행될 한식 된장의 향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을 포함한 종 관련 발효식품의 향미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복숭아 하면 전주복숭아'… 옛 명성 제고

전주농협, 19일 전주종합경기장서 '명품전주복숭아 큰잔치'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오는 19일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제25회 명품전주복숭아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70여년을 복숭아하면 '전주복숭아'를 떠올릴 정도로 전주는 복숭아의 집산지이자 국내 개량품종의 시발지로서의 명성을 날렸다. 과육이 연하고, 당도가 뛰어난 전주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된 명품 전주복숭아 큰잔치는 직거래장터를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신명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전주시가 후원하고 전주농협에서 주관하는 명품전주복숭아 큰잔치는 추진위원장인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을 중심으로 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복숭아 재배농가가 참여해 전주복숭아를 홍보하고 옛 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유서 깊은 행사이다.

이번 축제는 고향주부모임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복숭아 품평회, 복숭아 라이브커머스, 현여름 빙 복숭아 음악회, 복숭아 가공식품 시식 및 시음 등 여러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먹거리장터까지 마련돼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이룰 예정이다.

또한, 전주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내 조합장 전주농협 임원, 재배농가 등이 참석해 한 해 동안 노고한 과수 농업인들과 전주 복숭아를 사랑하는 소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한다.

축제 기간에는 만성동 APC에서 비파괴 딛도 선별기로 엄선된 고당도 복숭아 4,000박스를 1상자당 3kg기준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농협은 오는 19일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제25회 명품전주복숭아 큰잔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주 복숭아축제(위쪽), 복숭아축제에서 최고의 복숭아로 선정된 복숭아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아래쪽).

장수군, 청렴공감 릴레이 캠페인 펼쳐

장수군은 공직사회 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공무원의 청렴 의지를 담은 '청렴공감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최훈식 장수군수와 송주섭 부군수를 비롯한 장수군의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자신만의 청렴 문구를 작성해 SNS 형식의 청렴공감 포토 프레임을 활용해 활발한 인증사진을 내부계시판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최훈식 군수는 '청렴한 마음, 당당한 오늘'이라는 문구로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최훈식 군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며 나아가는 데에는 고위공무원들의 청렴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수군의 청렴도 향상을 통해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장수군을 만들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장수군은 기관장 주관 청렴회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골든벨 부패 취약기간 청렴주의보 발령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서 '효문화 학술포럼'

진안군은 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 진안군지회(지회장 조주열)와 13일 진안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에서 효문화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진안군이 효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조성하고 문헌 속에서 효에 대한 가치를 찾고자 학문으로 고찰한 옛 진안 효문화'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김종필 진안부군수, 군의원 등이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소순갑 (사)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 총재가 좌장을 맡고 김덕균 한국효문화진흥원 효문화연구단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루라 진안군의회 의원, 김자유 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 대구지원장, 최규섭 전북효교육원 전담교수가 참여하여 효문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종필 진안부군수는 "이번 포럼을 통해 효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대 시대에 접목해 볼 수 있는 효행실천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공경 받는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효사랑 집수리 지원 기여

장수군, 원진알미늄 원경의 대표에 감사패

장수군은 지난 12일 군수실에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창호 교체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장수군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에 기여한 원진알미늄 원경의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원경의 대표이사는 2010년부터 매년 장수군 및 장수군 유관기관에 누적 1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기증해왔으며, 올해는 장수 효사랑 지원사업에 창호 교체 재능기부를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최훈식 군수는 "원경의 대표가 지역사회에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배움이 주신 노고와 공헌으로 장수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군에서도 지역사회에 더욱 협력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군을 만들어가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부모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집안에 손잡이봉, 바다 미끄럼 방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1호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대상가구 신청을 받아 5가구를 선정, 지난달 회장실 수리, 사워실 보수, 창호 교체 등 지원을 완료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홍덕농협-무주농협, 고향사랑기부 상호 기부

고창군 홍덕농협과 무주군 무주농협 간의 상호기부를 위한 기탁식을 가졌다.

홍덕농협과 무주농협 임직원들은 지역 발전의 염원을 담은 기부금 500만원을 두 지역에 상호기부하고 지역 간 우호를 다졌다.

무주농협 과동열 조합장은 "무주농협과 홍덕농협 임직원이 손을 맞잡아 두 지역의 우호와 상생협력을 이루기 위해 기부에 동참했으며, 고창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군민이 행복하고 허리 넘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덕농협 백영종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창과 무주 두 지역의 지역친체와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이문구 지부장과 무주군지부 김범석 지부장이 함께 참석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헌덕과 무주농협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원



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무주=전문선 기자



알림

▲제1회 장수군 천천사랑 전국트로트가요제= 일시: 8월 12일(토) 오전 11시(예선) · 오후 4시 30분(본선), 장소: 장수군 천천면 춘송길 11 금강다슬기 축제 특설무대,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연락처: 063-231-6669, 010-7304-5665(김양목)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 버스 운영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정신건강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안심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버스는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운영은 취약계층 밀집 지역 복지관 사업장 및 재난발생지역, 지역 행사, 120민원봉사대 현장 등에서 정신건강 검진 도구가 구비된 버스를 이용해 정신건강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버스에서는 뇌파·맥파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검사와 상담 및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등록 및 상담 치료연계까지 함께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지역의 재난 심리지원을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2023년 남원의료원 화재 발생 현장을 직접 찾아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마음안심버스 서비스를 원하는 지역주민 또는 기관은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625-412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만선 치매안심과장은 "지는 지속적으로 마음안심 버스를 통해 정신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OCI 군산공장, 소룡동 등에 여름나기 물품 기탁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속길이 속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태성이엔씨 이동주 대표가 3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동주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맛게 된 무주군의 인연이

고향사랑기부로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하다"라며 "앞으

로 무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부금이 무주가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해지는데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유)태성이엔씨 전주소재 창호업체로 무주군과는 복합문화도서관의 창호 공사를 위한 자재를 납품하며 인연을 맺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별초대행서비스 등 총 47종의 디플로마를 미련했으며 관내 소외계층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선불할 수도 있도록 포인트 기부하기 상품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 환경미술협회 군산지부 초대전

군산시 소룡동 행정복지센터는 001(주) 군산공장(공장장 정승용 노조위원장 장육남)이 13일 소룡동과 미성동 5개 결연마을(해이, 장전, 개원, 미창, 서홍)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500만원(소룡동 200만원 미성동 300만원)의 여름나기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001(주) 군산공장의 이번 기탁으로 소룡동과 미성동 취약계층 50세대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용 001(주) 군산공장장과 장육남 노조위원장은 "무더위를 맞아 소외계층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형태로 기업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관군 소룡동장은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힘써주시는 001(주) 군산공장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